

‘내부총질’이 불붙인 국힘 갈등 격화

친윤계 이철규 “양천대소할 일”
천하람 “이대표 징계 대통령 묵인”
윤핵관 vs 이준석 측 날선 공방
당 지도부 비대위 전환 목소리

국민의힘 내에서 이른바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 대해 ‘내부 총질 당 대표’라고 표현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이른바 ‘문자유출 사태’로 공개된 것을 계기로 한동안 잠잠한 듯했던 양측의 갈등상이 다시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처분 이후 권 대행이 사실상 ‘원톱’을 맡아 당을 이끄는 것으로 정리됐던 ‘지도부’ 문제를 두고도 물밑에서 논쟁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과 이 대표의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전날 ‘양두구육(羊頭狗肉-겉은 번지르르하나 속은 변변치 않음)’이라는 표현으로 응수한 것을 두고 28일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윤핵관’으로 꼽히는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양두구육이 아니라, 지구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아직도 흑세무민 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니 양천대소(仰天大笑-하늘을 보고 크게 웃음) 할 일”이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전날 이 대표의 ‘양두구육’ 표현에 대해 정치권에서 ‘윤핵관’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 가운데, 불편한 심정을 여과없이 드러낸 것이다.

전날 ‘문자 유출 사태’ 파장 최소화에 주력했던 권 대행은 이날 때마침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차세대 이디스스 1번함 정조대왕함 진수식’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 ‘문자 유출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권 대행이 공개석상에서 처음 만나는 자리여서 관심이 집중됐다.

이 행사에는 공교롭게도 차기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울산 지역구 의원’, ‘해군 출신’ 등의 이유로 나란히 초청받아 참석, 눈길을 끌었다.

이날 권 대행의 행사 참석으로 매주 목요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는 29일로 하루 미뤄졌다.

당내에서는 ‘문자 유출 사태’를 둘러싼 여진과 함께 뒤숭숭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다.

당 혁신위원으로 활동 중인 천하람 당협위원장도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이 대표에 관해 총체적으로 내부총질 하는 당 대표라고 보고 계신다는 게 메시지 자체에서 명확해졌다”며 “(이 대표 징계에) 뭔가 ‘윤핵관’들의 힘이 작용했고 대통령께서 그걸 그렇게 만류하지는 않으셨을까의 관심이 계속 들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출신의 권은희 의원은 MBC 라디오에

서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 “‘사적 대화’라기보다 (대통령의) 솔직한 속내”라면서 “전임 당 대표에 대한 윤리위 결정을 두고 그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토사구팽을 계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규명될 필요가 있는데 정상적이려면 이런 부분이 주장이 돼야 하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주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사적 대화’에 의미 부여하는 분위기를 경계해야 한다. 윤리위 징계에 윤석이 작용했다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원톱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핵관’ 장제원 의원은 국회 행안위 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자 유출 사태’에 대한 질문에 “나도 뉴스보는 사람인데 당연히 (봤다)”면서도 “내가 따로 할 말도 없어요”라며 말을 아꼈다.

3선 이상 중진들과 친윤 그룹 의원들 일부가 당의 안정적인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 시작하면서 ‘지도부’를 둘러싼 물밑 논의도 다시 꿈틀대는 모습이다. 다만 비대위 체제 전환이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당 지도부의 한 인사는 “비대위 체제 전환을 할 수가 없다”며 “당 윤리위에서 이 대표에 대해 6개월 징계를 내리자 6개월 뒤 돌아오게 돼 있는데 비대위 체제로 가면 윤리위 결정을 행해주시키는 ‘잠수’가 되기 때문에 이 대표가 (비대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 신청을 바로 낼 수 있고, 법원이 무조건 인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민주 “모든 방안 동원 경찰국 신설 저지”

“위법적 시행령 통치 바로잡을 것”
“경찰대 개혁은 갈라치기” 맹비난

더불어민주당은 28일에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맹공을 이어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청원이 하루 만에 37만 명을 넘었다. 국민이 엄중히 경고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독선과 오만의 행보를 멈추고, 국민에게 사과하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위법적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이상인 장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민생경제는 뒷전에 두고, 소위 검찰공화국을 만든 데 이어 경찰을 장악하겠다고 위법적·위헌적 상태에서 시행령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저희에게는 대한민국의 아픈 민주주의 역사와 관련된 거라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시행령으로 우회하는 방식은 법령 위반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경찰과 행정안전부를 담당하는 상임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행안위원회 조영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하려 한다”며 “입법적 통제, 행정부 감시부에 없지 않겠느냐”고 대대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경찰대 출신에 특혜를 주는 것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경찰대 개혁 카드’를 꺼내는데 대해서도 ‘갈라치기’라고 맹비난했다.

우 위원장은 “경찰국 신설 문제에 반대하며 뭉치는 것에 당황하니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을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다. 나쁜 방식”이라며 “특정 대학 출신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장관이 움직이는 건 아주 졸렬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갑자기 경찰대 이야기를 왜 꺼냈는지 그 의도가 굉장히 불순해 보인다”며 “출신 별로 갈등 양상이 있는 것을 교묘히 이용해 경찰 조직을 갈라치기 하려는 공작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도 졸업하면 소위로 임관하지 않느냐”며 “행안부 장관이라는 분이 경찰대에 대한 보복 감정에 시달렸는지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김진표 “진영정치·팬덤정치와 결별...여야 역지사지 하라”

국회의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윤 대통령 제안 회동 일정 조율중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여소야대라는 생소한 환경에 직면한 양당의 틈에 불신이 싹 트면 그 끝은 파국일 수밖에 없다”며 “여야 모두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장 2년 임기 동안 ‘협력의 다리’를 놓는 데 집중하겠다. 여야는 물론 정부와 국회,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도 튼튼한 다리를 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정을 연결하는 국회의장이 되겠다”며 “만약 요청이 있다면 대통령과 장관들을 야당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연결하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장단과의 회동을 제안했고, 회동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그런 자리가 마련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협력의 정치를 기획하고 이를 책임은 여당에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의 모습을 버리고 속히 ‘소수 야당’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은 사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 차음 ‘다수 야당’이 됐다. 그것도 169석, 압도적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라며 “국민은 국의과 민생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야당, 절제의 미덕을 발휘하는 성숙한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여야를 향해 “진영정치, 팬덤정치와 결별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소수의 극단에 끌려다니는 정치는 정당과 국민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초대 경찰국장 非경찰대 김순호·김희중 유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행안부 경찰국 초대 국장으로 비(非) 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치안감(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장)과 김희중 치안감(경찰청 형사국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강서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통식 참석 후 경찰국장 인선에 대해 묻는 취재자에게 “경찰 입직 경로가 다양하다. 순경으로 출발, 경찰대 졸업, 간부 후보생 출신 등이 있다”며 “그분들 중에서 누가 초대 경찰국

장으로 적합한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김순호 치안감도 유력한 후보로서 검토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아마 내일쯤이면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순호 치안감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1989년 경찰 특채로 경찰에 입직했다. 경찰청 보안과장, 광주 광산경찰서장,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 등을 지냈고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이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장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남 의원 ‘우주잔해물 최소화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 국회의원이 28일 정부가 지속가능한 우주개발을 위해 우주잔해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우주잔해물 최소화법(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엔우주사무국(UNOOSA)은 1957년 소련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만3320개의 인공우주물체가 발사됐고, 이 가운데 약 8000개의 인공우주물체가 궤도를 이탈하거나 수명이 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궤도를 이탈하거나 수명이 다한 인공우주물체가 증가하면서 최근 우주공간에서 우주물체끼리 충돌해 발생하는 우주잔해물 역시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21년 11월 기준 지구 궤도에 존재하는 우주잔해물은 10cm 이상이 약 3만6500개, 1cm-

10cm는 약 100만 개, 1mm-1cm는 약 1억3000만 개에 달하고, 유럽우주국(ESA)은 해체, 폭발, 충돌 등으로 우주잔해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인공우주물체가 630개에 달한다고 보고하는 등 추가적인 발생 위험 역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우리나라도 정부가 우주 환경 보호를 위해 우주잔해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우주사업자 역시 정부 정책에 따라 우주잔해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투자자 모심

1. 자금 - 10억원 이상
2. 기간 - 2년~3년 정도
3. 물건 - NPL, 금매물, 경매특수물건
4. 수익 - 연 20% 이상 법적 보장
5. 보장 - 근저당 또는 소유권 이전
6. 지역 - 경기, 수도권, 전남/광주
7. 방식 - 단독 또는 공동투자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주식회사 오천
H. 010-3605-5000

신안동, 대인동, 땅, 매매

1. 신안동 176평, 대인동 156평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월 300만원 정도 수입중
4. 매매 - 평당 1200만원씩, 조정가

문의. 010-3605-5000